

##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저도 취임한지 한 2년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맡은 지도 이제 2년 가까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사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또 안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생각해 보면 충분히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고도 느낄 것이고, 또 대통령이 우리에게 다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놓고 평통 자문위원의 뜻도 같다고 혼자 간다는 이런 소외감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평통이란 조직이 원체 방대하고 저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바쁜 일에 쫓기다 보니 여러분들 사이에 대화도 충분히 못해서 아마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서 그래도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체로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어쨌든 개별적으로 여기저기서 만나서 인사하고 손잡고 해서 인사를 나눴던 분들이 아주 많아서 앉아서 눈인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습니다. 아이들 말로 '눈 맞춘다'고 그러나? (그렇게) 맞췄습니다.

미래를 놓고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차근차근 계획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평통 자문회의를 이렇게 이끌어 오는 동안에 어떻든 작은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의가 있고 또 미심쩍은 데가 있는 것 같아도 큰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고 협력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진전이 없었던 것이 아쉽지만 또 한편 보면 크게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들이 여러 가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탈 없이 관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놓고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차근차근 계획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이 협력해준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냥 잘 된다'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자화자찬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좀 올려서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둘러 봤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오면서 크게 예측에서 벗어난 일은 없지만 제게 상당한 감동을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감동은 대한민국이 참 역량이 대단한 나라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그냥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참 대단한 나라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다,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냥 느낌이 아니라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국내에 두고 다녀오면서 국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다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자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세대가 이루어낸 커다란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결의가 단단하고 또 목표를 성취해 낼 수 있는 그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를 다녀오면서 70년 동안에 정권이 한 100번씩이나 바뀐 정치적 혼란의 역사를 겪어온 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금도 세계 5위의 국력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수준의 문화를 자랑하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당당하고 또한 밝은 미래를 자신하는 국가로 계속 성장해 올 수 있었는가, 계속 궁금하게 생각해왔고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도 지난 100년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프랑스가 겪었던 국내적인 정치적 혼란의 수준이 아니라 가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리한 조건과 고통은 다 겪어온 국가 아닌가, 한말에 있어서의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수모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식민지 시대, 그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쯤까지 온 것은 무슨 비결일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따져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수한 것이다. 결의가 단단하고 또 목표를 성취해 낼 수 있는 그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저는 우리 국민들 덕분에 다니면서 대접을 참 잘 받았습니다. 제 개인을 누가 그리 잘 알겠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접을 받고 다녔는데 그 대접이 그야말로 참 가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이끌어 오신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70대, 60대, 우리 50대도 한몫 했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 저는 역시 다음 세대도 잘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했던 일들을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들 또한 업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열 다섯 살짜리 학생들을 놓고 학력평가를 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종합성적에서 우리가 세계 2위를 했습니다. OECD 국가에서 2위면, 세계 2위입니다. 2위를 했으니 지금 가방 들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관용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통일 정책과도 긴밀히 연관되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관용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다보니 까 세대간에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가 200년 동안 해 왔던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는 50년 만에 압축해서 해 내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역시 200년 동안에 성취해 온 경제적 성공을 우리는 불과 40년, 길어야 50년에 지금 성취하고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바로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급격합니다. 농사짓고 사는 집에서 어릴 때 꿀 베고 소먹이고 논에 모내기 한다고 학교 결석하면서 자라던 우리가, 그래서 쌀 다섯 되 쪼어지고 나와서 자취방 얻어서 처음 고등학교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소위 첨단문명의 시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이제 탈 산업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 우리가 겪는 새로운 문명의 충격, 가치관의 변화에 따르는 단절감, 이런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제국주의 질서를 경험하고 냉전질서를 또 겪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세계의 질서 또 냉전 이후의 질서에 우리가 부닥쳐 있습니다. 이 경험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고와 논리의 틀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다른 시대를 한 사람이 전부 다 감당하고 그것을 다 소화해 낸다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와 같은 빠른 속도의 변화와 단절을 극복하고 이 모두를 소화하고 수용해낼 수 있다면, 그것에 성공한다면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예를 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의 사이에서 어떤 단절을 느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 또한 지금의 젊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와 같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이

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또 동시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정해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공존의 어떤 지혜를 받아나갈 수 있는 이 여백이 관용입니다.

이것은 결국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단순한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일 만큼 단순한 말은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또 동시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정해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공존의 어떤 지혜를 받아나갈 수 있는 이 여백이 관용입니다. 나와 다름뿐만 아니고 틀린 데 대해서도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기 때문에 틀린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설득하고 포용해 가는 것을 관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각별히 정성을 모아서 이 관용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전후에 끊임없는 불신과 적대감, 증오감을 부추기는 행위들이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어쩌면 정치의 역사라는 것이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적을 만들고 불신으로 국민을 결합시키고, 증오심으로 국민을 결합시키고, 때로는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반복해 오지 않았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인류에게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역사를 극복해야 합니다. 수천 년 극복하지 못했던 역사라고 해서 반드시 극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역사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보하는 역사를 살아왔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서도 침략과 지배, 억압, 그런 질서가 수천 년 계속돼 왔었지만 근대 민주주의의 사상이라는 것이 그것을 하나하나 해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인간이 끊임없이 힘의 질서를 거부하고 도리의 질서를 찾아 나가고 그리고 지배와 억압의 질서로부터 자유와 평등의 질서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결코 우리 역사는 반복된 것이 아니라 한발 한발 진보해 나왔다고 말할 수 있고 앞으로도 진보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힘을 우위에 내세우고자 하는 한쪽에서의 질서가 있고 힘의 우위를 거부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정치사는 아직 미결의 장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다시 불신과 적대, 지배와 억압의 질서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신뢰를 키우고 관용과 화해, 협력의 질서,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질서로 갈 것이냐의 선택은 역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힘을 우위에 내세우고자 하는 한쪽에서의 질서가 있고 힘의 우위를 거부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지배와 억압의 질서가 남아 있다고 보고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흐름은 지금도 치열하게 세계의 질서 속에서 충돌하고 있으며 이런 질서 위에 남북관계가 서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지나치게 고립되지 않도록 두둔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참 답답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너무 고립돼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북간이 국제사회에서 외교 경쟁을 했습니다. 북한의 외교력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유엔에서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끊임

없이 북한과 외교 경쟁을 했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덕분으로, 역량 있는 우리 국민들 덕분으로 지금은 외교 경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한국 외교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지나치게 고립되지 않도록 두둔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 협력하고 그렇게 함께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너무 고립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제정세에 너무 어둡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 아닌 독자적인 고집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이 매우 참 안타깝습니다.

**좀더 인내하고 좀더 시간을 기다리면서 신뢰가 생길 때까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우리 한국 정부는 상호주의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력의 차이만큼 오해도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거나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은 극도로 회피하면서 대화를 지속시켜 나가려고 하지만 한국 정부가 피할 수 없는 작은 일들에 관해서도 자주 자주 들어지고 대화를 단절시키고 해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얼른 우리가 상호주의 카드를 끄집어 낼 형편도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인내하고 좀더 시간을 기다리면서 신뢰가 생길 때까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해줘야 되냐', '얼마만큼 양보해야 하나', 때때로 우리 국민들이 아마 자존심을 상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고 함께 문을 열고 그리고 개혁해서 뭔가 함께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우리가 힘겨루기해서 그저 한번 이기

고 지는 문제라면, 축구시합 하듯이 한번 이기고 한번 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도 나름대로 맞대응을 할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끝까지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무너질 때, 우리 체제가 위협해질 때, 평화가 깨질 때, 아마 그때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런 경우에 대비할 만한 충분한 준비를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혹시 불안해하신 분들이 없지도 않은 것 같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한 일이지만 우리는 국방비를 오히려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군비의 내실도 개혁을 통해서 착실히 더 다져가고 있습니다. 끝내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양보하지 않지만, 우리의 안정과 우리가 이룩한 번영과 그 토대로서의 평화가 유지되는 한 관용으로서, 인내심으로서 좀더 노력해 갑시다, 성의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기분을 맞추는 일도 아니고 또 자존심을 세우는 일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결국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이 하나로서 그렇게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그랬고 그 뒤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 보면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무한히 관대해 지기는 참으로 마음이 편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기분을 맞추는 일도 아니고 또 자존심을 세우는 일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결국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이 하나로서 그렇게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가. 도덕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우리에게 더 책임이 있습니



다.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더 강한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부의 정책을 거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뭔가 못마땅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먼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위험이 없고 또 나라가 분단이 돼서 외세의 부추김에 놀아나는 일이 없고 농락당하는 일이 없고, 그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책임 있게 가꿔갈 수 있는 그런 자주적인 국가, 그리고 넉넉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넓게 가집시다.

**이제 평화와 번영에 대한 세계적 책임을 나눠서 져야 될 만큼 한국에 대한 세계의 기대는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갈등이 많습니다. 이 갈등이 많은데, 가만 보면 결국 북한에 대한 관계입니다. 북한에 대한 관계 속에서 '너 북한하고 친하지', '너 북한 편 아니냐', '내가 왜 북한 편이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친북세력이 있잖냐', '지금 친북세력이 어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애길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북한이 한 기준이 돼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 스스로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보다 더 크게 변화한 것은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변화했습니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확실히 낮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제력도 좀 못 미친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전돼서 이제 한국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갖고 국방력도 실속에 있어서는 단순 탱크 몇 대가 아니라 실제 전투력을 평가하는 실속에 있어서는 한국이 훨씬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주한미군 또 미국의 증원군 까지를 보태면 그만 비교를 할 수 없게 돼 버립니다. 그렇게 역전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이제 국제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

고 또 앞으로 미래가 그 이상일 것으로 이렇게 촉망받는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평화와 번영에 대한 세계적 책임을 나눠서 져야 될 만큼 한국에 대한 세계의 기대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 됐기 때문에 관계가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그래서 북한을 믿기가 너무 어렵고 계속해서 경계심과 불신을 가지고 그래서 증오심과 경계심이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오늘의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아마 우리 민족의 불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우리 민족이 그동안에 겪어왔던 역사의 부채를 아직 다 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충분치 못했던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우리가 적응해 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변화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어떤 공통의 기반이 없으면 아무리 남남갈등이라는 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풀리지 않으면 극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도 백 번 천 번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라는 큰 국민적 행사를 거쳐서 선출된 대통령마저도 북한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편다는 이유로 '친북세력'이라고 그렇게 의심을 해 버리면 이 다리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은. 그래서 어떻게 의심을 하지 않도록, 안심하도록 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상황을 수용하는 것도 일부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도 백 번 천 번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것이 저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정략의 도구가 되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남이냐 영남이냐를 가지고 이걸 갈라쳐서 정치적으로 수지를 맞추는 이런 일이 존재하는 한, 또 예를 들면 이것이 정략의 도구가 되는 한 남북관계가 정

략의 도구로 되는 한 우리는 통일로 한 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전에 국민적 분열을 먼저 겪어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또 정치하는 분들에게 비판하고 싸울 것은 싸우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정략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될 문제는 정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고, 우리의 근본적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가 정략의 장에서 그렇게 왜곡되고 부풀려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분열되고 이런 일은 모두가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제는 안정되게 그리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예정보다 길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십시오. 경제가 어렵습니다. 금방 못 풀어드려서 국민들 보기에 참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생각보다 조금 오래 가고 해서 무척 안타깝지만 그러나 대책은 있습니다. 80년대 미국 경제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 아직도 세계 경제는 미국이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90년대 일본의 경제는 이제 영원히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지만 일본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98년부터 치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도 또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긴 세월 제자리걸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회복되다가 신용불량자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은 현상을 관리하고 올해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장단기 계획들을 차근 차근 세우고 또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전체로 금방 별떡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는 안정되게 그리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믿고 맡겨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지금 큰 격변기에 들어 서 있습니다. 지난 50년이 '격동의 50년'이라고 얘기해야 하지만 그 격동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빠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그렇게 다시 한 번 창조해 나갑시다.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